

제13대 국회의원의 이념적 가치성향에 관한 분석

金 光 雄*

〈目 次〉	
I. 머릿말...연구의 의의	V. 맺는말...연구의 요약 및 한계
II. 연구의 배경과 틀	참고문헌
III. 분석결과...개관	부록...보충자료
IV. 분석결과...특징	

〈要 約〉

의회민주주의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매우 필요한 기본요건이다. 지금까지 역대 국회의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간간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념적 가치성향을 가려본 적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1991년 9월에 국회의원 196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를 겸하여 행한 조사중에서 이념성향(실용주의/ 이상주의, 다원주의/ 관료주의, 자유주의/ 회의주의, 엘리트주의/ 민중주의)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서 밝혀진 것 몇 가지만 간추리면, (1) 정당별로는 여당의원들이 실용주의자이고 야당의원들이 이상주의자이며, (2) 지역별로는 호남출신 의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고, (3) 경력별로는 학자출신 의원들이 실용적이면서 관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의원이 관료적이고 다선의원이 다원적이고, (5) 여당의원들은 엘리트주의이고 야당의원들이 민중주의적인 성향을 띤다.

이 연구가 의원들이 실제로 행하는 정책표방과 정치활동과 연관지워 분석 되었으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I. 머릿말...연구의 의의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조사는 간간이 있었지만, 이념적 성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몇 편 있었던 유사한 연구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성향에 관한 것으로서, 예컨대 의원들이 자유, 평등, 정의 등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에 대해, 그리고 공개토론, 비판, 타협과 협상 등 민주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대해, 그리고 공개토론, 비판, 타협과 협상 등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밝혀낸 정도였다(박동서·김광웅 공저, 『한국인의 민주정치 의식』 1987). 일반적으로 정치의식조사는 정치엘리트보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들의 이념적 성향은 어느 정도 파악된 바는 있지만(신도철외,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1990), 정치엘리트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연구는 그러한 뜻에서 의의가 있으며, 더욱이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가치성향을 實用/理想, 多元/官僚, 自由/懷疑, 그리고 엘리트/民衆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의의보다 더 큰 것은 이들의 이념성향으로 하여 정치와 정책의 방향이 가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복잡한 정치현상을 뒤쫓고 난잡한 정책의 내용이나 동기를 대강 이해하고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굳히려고 안간힘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조사로 겨우 일반국민으로서 법과 제도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과연 있는 것이며, 또 정치와 정책의 흐름이 왜 그러한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 되었다. 이는 정치적 민주화의 큰 도정에서 책임있는 일익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이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종의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인의 행동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參與民主主義의 진수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런 뜻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배경과 틀

이 연구는 제13대 국회의원(299명)중 196명을 대상으로 1991년 9월 4일부터 11일 까지 면접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은 매우 다양하나(김광웅·김학수, 『제13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분석』 1991.10), 여기서는 의원들의 이념성향에 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이 이념성향은 기본적으로 네가지의 가치...(1)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pragmatic-goal seeking: muddler through), (2) 다원주의와 관료주의 (politics model-plur: list: governance model-bureaucratic), (3) 자유주의와 회의주의 (support for political liberty, contestation and pluralism: skepticism about political liberty,

contestation and pluralism) 및 (4)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elitist: populist—등에 대한 반응을 본 것으로서, 이들 기본가치는 모두 16개의 문항으로 풀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들 기본적 가치와 문항은 기존연구중 Joel D. Aberbach, Robert D. Putnam, 그리고 Bert A. Rockman이 지은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Western Democracies*(Harvard University Press, 1981)에서 영국, 독일, 이태리 및 네델란드 등의 국가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자세하게 물어본 질문을 우선 나열하면,

1)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 (1) 정치적 논쟁에서 해결책을 얻으려면 좌나 우와 같은 극단적인 입장을 피하고 중간입장에 서야 하는지?
- (2) 정치는 제약속에서 최적의 합이점을 찾는 일종의 예술이긴 한데, 정치 지도자는 원대한 이상이나 장기적 계획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아니면 단기적 실현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 (3)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서 효율성이 중요할까, 아니면 성격과 내용이 더 중요할까?

2) 다원주의와 관료주의

- (4) 이익집단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인가?
- (5)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가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가?
- (6) 기본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욕구는 정당이나 의회가 아니라 관료기구를 통해 충족되는가?
- (7) 정치인은 종종 국민전체의 복지보다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에 더 몰두하는가?
- (8)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정치적 요인인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인가?

3) 자유주의와 회의주의

- (9)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일 수 있는가?
- (10) 일반시민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가?
- (11) 한 계층이나 개인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곧 다른 계층이나 개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12) 타협은 곧 자기편을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스런 행위인가?
 (13) '정치선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국가가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제할 수 있는가?

4)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

- (14) 좋은 가문이나 경력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15) 정치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가?
 (16)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평범한 시민이 정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리인가?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각문항마다 의원들이 답하면 이념적 성향은 비교적 뚜렷이 밝혀진다. 예를 들어 정치논쟁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피하려는 의원은 실용주의자이다. 이익집단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적어도 다원주의자는 아닌 것이다. 또 일반시민이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는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정치적 자유주의자이다. 그리고 정치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엘리트주의자인 것이다.

Ⅲ. 분석결과...개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본 제13대 국회의원의 이념적 성향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 제13대 국회의원들은 이상주의자라기보다 매우 실용주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좌나 우와 같은 극단적 입장을 피하려 한다(89.3%).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고자 단기적 실현에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더 관심을 가져(76.2%) 이상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서 내용에도(57.8%) 효율에도(42.2%) 약 반씩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실용주의자가 되었다가 이상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13대 국회의원들은 또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55.6%), 그렇지 않다고도 하여(44.4%) 다원주의자도 있고 관료주의자도 있음을 알게 된다. 이중에는 정당을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본인으로 보아(86.4%), 다원적인 것과 거리가 먼 성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보듯이, 반면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관료기구가 아닌 정당이나 의회를 통해 충족된다(79.8%)고 생각하고 있어 다원주의적 성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원주의적 성향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기술합리성을 중시하려는 것(82.1%)으로도 나타난다.

(3) 제13대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회의를 느끼기 보다는 자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문항들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적 성향과 정치적 회의주의적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나, 법제정에서 자의에 맞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69.1%)거나, 타협을 배반같은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95.9%) 정치적 자유주의적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4) 제13대 국회의원은 스스로 엘리트이면서도 엘리트주의자들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즉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좋은 가문이나 경력을 지닐 필요가 없다(74.2%)고 생각하며, 정치에서 소수의 지도자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53.3%). 그런가 하면 일반시민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치 않으려 하여(57.7%) 엘리트적 성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IV. 분석결과...특징

다음에는 이상의 개괄적 성향을 의원들의 정치·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나누어 두드러진 특징 몇가지를 밝혀보기로 한다.

1. 여야 정당별 이념적 성향의 특징

1) 여당의원들(140명) 중에는 실용주의자(51.4%)와 이상주의자(48.6%)가 비슷하게 있으나, 야당의원들(56명) 중에는 실용주의자(42.9%)보다 이상주의자(57.1%)가 약간 더 많다. 여와 야를 비교해도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약간 더 이상주의자이다(야당의원의 비율이 28.6%인데, 이상주의자는 32%이고, 여

〈표 1-1〉 여야 정당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단위:명, %)

	여	야	합
	당	당	계
실용주의	72 (51.4)	24 (42.9)	96 (49.0)
이상주의	68 (48.6)	32 (57.1)	100 (51.0)
합계	140 (71.4)	56 (28.6)	196 (100.0)

주: () 안은 비율임.

당의 권은 비율이 71.4%인데, 이상주의자는 68%에 머문다). 야당의원들이 비교적 이상주의자라는 것은 정권을 담당해 본 경험이 없는 것이 이유가 될 듯하다(〈표 1-1〉 참조).

2) 여당의원들중에는 다원주의자(28.6%)보다 관료주의자(71.4%)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야당의원들중에도 다원주의자(42.9%) 보다 관료주의자(57.1%)가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와 야를 비교하면 야당의원(24.2/28.6)보다 여당의원(75.8/71.4)이 더 관료적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여당의원들중에는 전문 민간 및 군관료 출신의원들이 다수 섞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표 1-2〉 참조).

〈표 1-2〉 여야 정당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 (단위:명, %)

	여 당	야 당	합 계
다 원 주 의	40 (28.6)	24 (42.9)	64 (32.7)
관 료 주 의	100 (71.4)	32 (57.1)	132 (67.3)
합 계	140 (71.4)	56 (28.6)	196 (100.0)

주: () 안은 비율임.

3) 여당의원들중에는 자유주의자(62.1)가 회의주의자(37.9)보다 배 가깝게 많고, 야당의원들중에는 자유주의자(85.7)가 회의주의자(14.3)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여와 야를 비교하면, 야당의원(35.6/28.6)도 여당의원(64.4/71.4) 못지 않게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한 경험에서 시작하여 정치현상의 본질을 되도록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현장 참여자로서의 긍정적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표 1-3〉 참조).

〈표 1-3〉 여야 정당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 (단위:명, %)

	여 당	야 당	합 계
자 유 주 의	87 (62.1)	48 (85.7)	135 (68.9)
회 의 주 의	53 (37.9)	8 (14.3)	61 (31.1)
합 계	140 (71.4)	56 (28.6)	196 (100.0)

주: () 안은 비율임.

4) 여당에서는 엘리트의식을 가진 의원(47.1)이나 민중의식을 가진 의원(52.9)이 비슷하게 나타나나, 야당에서는 민중주의 의식을 가진 의원(71.4)이 엘리트의식을 가진 의원(28.6)보다 훨씬 더 많다. 여와 야를 비교하면, 역시 여당의

〈표 1-4〉 여야 정당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 (단위: 명, %)

	여	야	합	계
엘리트주의	66 (47.1)	16 (28.6)	82	(41.8)
민중주의	74 (52.9)	40 (71.4)	114	(58.2)
합	140	56	196	(100.0)

주: () 안은 비율임.

원(40.5/71.4)이 야당의원(19.5/28.6)보다 엘리트적 성향이 훨씬 강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야당의원일수록 민중에 뿌리를 박고 가진자를 대항해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기 때문일 것이다(〈표 1-4〉 참조).

2. 출신지역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의 특징

1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포함)와 영남, 그리고 기타(이북 포함) 중이 실용주의자들이 많다. 반면에 강원도 영동, 충북의 중부, 그리고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출신 의원들은 이상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동출신의 의원들이 매우 이상주의자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그리고 영남출신과 호남출신 의원들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자는 실용주의적, 후자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 지역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 (단위: 명, %)

	서울 경기	영 동	중 부	호 남	영 남	기 타 ¹⁾	합	계
실용주의	21 (60.0) ²⁾	1 (10.0)	10 (45.5)	22 (43.1)	39 (53.4)	3 (60.0)	96	(49.0)
이상주의	14 (40.0)	9 (90.0)	12 (54.5)	29 (56.9)	34 (46.6)	2 (40.0)	100	(51.0)
합	35 (17.9)	10 (5.1)	22 (11.2)	51 (26.0)	73 (37.2)	5 (2.6)	196	(100.0)

주: 1) 기타는 제주와 이북출신을 포함.

2) () 안은 비율임.

2) 지역별로 보면 호남(광주·전남)과 영남(부산·경남)의 일부 출신 국회의원이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관료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영동, 중부, 영남 일부 및 기타지역 출신의 의원들은 대부분 관료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어 권력지향성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다만 강원도 출신 의원들의 성향이 관료적이라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영호남간의 차이가 이 다원성과 관료성에서 나타나는가를 보

〈표 2-2〉 지역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서울 경기	영 동	중 부	호 남	영 남	기 타 ¹⁾	합 계
다원주의	10 (28.6) ²⁾	1 (10.0)	6 (27.3)	21 (41.2)	25 (34.2)	1 (20.0)	64 (32.7)
관료주의	25 (71.4)	9 (90.0)	16 (72.7)	30 (58.8)	48 (65.8)	4 (80.0)	132 (67.3)
합 계	35 (17.9)	10 (5.1)	22 (11.2)	51 (26.0)	73 (37.2)	5 (2.6)	196 (100.0)

주 : 1) 기타는 제주도와 이북출신을 포함

2) () 안은 비율임.

왔더니 역시 영남쪽이 강한 관료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남지역이 실용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실용주의와 관료주의는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2-2〉 참조).

3) 지역별로 자유주의와 회의주의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보았더니 호남출신 의원들이 자유주의적 성향이 매우 짙고, 그 밖의 지역도 회의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편이라고 해야 할 듯 하다. 옅으나 그렇다고 회의주의적 색채가 강하지도 않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짙은 지역으로 호남이 지목된 것은 蠶를 숭상하고 탐닉하는 전통때문일 것이고, 호남에 비해 영남이 회의주의적인 것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규제지향적이라는 뜻일 것이다(〈표 2-3〉 참조).

〈표 2-3〉 지역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서울 경기	영 동	중 부	호 남	영 남	기 타 ¹⁾	합 계
자유주의	23 (65.7) ²⁾	6 (60.0)	15 (68.2)	44 (86.3)	45 (61.6)	2 (40.0)	135 (68.9)
회의주의	12 (34.3)	4 (40.0)	7 (31.8)	7 (13.7)	28 (38.4)	3 (60.0)	61 (31.1)
합 계	35 (17.9)	10 (5.1)	22 (11.2)	51 (26.0)	73 (37.2)	5 (2.6)	196 (100.0)

주 1) 기타는 제주도와 이북출신을 포함

2) () 안은 비율임.

4)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일부(인천·경기)와 중부 일부(충북) 정도를 빼놓고는 의원들이 대개 엘리트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서울, 영동 중부 일부(대전·충남), 호남 그리고 기타의 이북출신 의원들은 민중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특히 서울과 이북의 경우는 매우 반엘리트주의적이어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준다. 스스로는 엘리트이되 정치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표 2-4〉 지역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단위 : 명, %)

	서울 경기	영 동	중 부	호 남	영 남	기 타 ¹⁾	합 계
엘리트주의	16 (45.7) ²⁾	4 (40.0)	9 (40.9)	17 (33.3)	35 (47.9)	1 (20.0)	82 (41.8)
민중주의	19 (54.3)	6 (60.0)	13 (59.1)	34 (66.7)	38 (52.1)	4 (80.0)	114 (58.2)
합 계	35 (17.9)	10 (5.1)	22 (11.2)	51 (26.0)	73 (37.2)	5 (2.6)	196 (100.0)

주 : 1) 기타는 제주도와 이북출신을 포함

2) () 안은 비율임.

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어느정도 개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표 2-4〉 참조).

3. 연령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의 특징

1) 연령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나이가 들수록 실용주의이고 젊을수록 이상주의라는 것을 다음 〈표 3-1〉로 쉽게 알 수 있다. 연령따라 실용과 이상의 구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용성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라는 해석을 내려볼지도하다.

〈표 3-1〉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단위 : 명, %)

	40대/이하	50대	60대/이상	합 계
실용주의	21 (52.5)	53 (48.2)	22 (47.8)	96 (49.0)
이상주의	19 (47.5)	57 (51.8)	24 (52.2)	100 (51.0)
합 계	40 (20.4)	110 (56.1)	46 (23.5)	196 (100.0)

주 : () 안은 비율임.

2) 연령별로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을 가려보면 전체로 다원적이기보다는 관료적인데 나이가 들 수록 다원주의보다는 관료주의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 3-2〉 참조).

〈표 3-2〉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단위 : 명, %)

	40대/이하	50대	60대/이상	합 계
다원주의	15 (37.5)	37 (33.6)	12 (26.1)	64 (32.7)
관료주의	25 (62.5)	73 (66.4)	34 (73.9)	132 (67.3)
합 계	40 (20.4)	110 (56.1)	46 (23.5)	196 (100.0)

주 : () 안은 비율임.

3) 연령별로 정치적 자유주의와 회의주의를 가려보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자유주의에,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많을수록 회의주의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자가 줄어든다는 것 뿐이다. 이를 주어진 질문과 연결시켜 부연하면, 연령이 많은 의원일수록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시민은 그리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표 3-3〉 참조)

〈표 3-3〉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단위:명, %)

	40대/이하	50대	60대/이상	합 계
자유주의	30 (75.0)	75 (68.2)	30 (65.2)	135 (68.9)
회의주의	10 (25.0)	35 (31.8)	16 (34.8)	61 (31.1)
합 계	40 (20.4)	110 (56.1)	46 (23.5)	196 (100.0)

주: () 안은 비율임.

4) 연령별로 의원들의 엘리트적 의식성향을 가늠해 보니까 젊을수록 민주주의적 의식이 강하나 그렇다고 나이 든 의원이 반드시 엘리트적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의식 성향을 띠고 있긴 한데 다만 50대만이 그 정도가 60대만 같지 않게 덜 민주적이다. 아마도 가장 활력있고 원숙하게 일하는 연령층의 의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엘리트의식이 조금은 더 강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3-4〉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적 성향(단위:명, %)

	40대/이하	50대	60대/이상	합 계
엘리트주의	14 (35.0)	52 (47.3)	16 (34.8)	82 (41.8)
민주주의	29 (65.0)	58 (52.7)	30 (65.2)	114 (58.2)
합 계	40 (20.4)	110 (56.1)	46 (23.5)	196 (100.0)

주: () 안은 비율임.

4. 경력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의 특징

1) 경력에 따라 의원들의 실용성과 이상성을 가려보니까 의외로 학자출신 의원들이 실용적임을 알 수 있다. 학자 경력을 가졌지만 정계에 진출한 것을 보면 이상주의자는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에 사기업과 군인 출신 의원들이 이상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

〈표 4-1〉 경력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 (단위: 명, %)

	정치인	관 료	언론인	학 자	법조인	사기업	군 인	기 타	합 계
실용주의	22 (53.7)	11 (55.0)	5 (41.7)	9 (64.3)	10 (43.5)	16 (36.4)	5 (35.7)	17 (63.0)	95 (48.7)
이상주의	19 (46.3)	9 (45.0)	7 (58.3)	5 (35.7)	13 (56.5)	28 (63.6)	9 (64.3)	10 (37.0)	100 (51.3)
합 계	41 (21.0)	20 (10.3)	12 (6.1)	14 (7.2)	23 (11.8)	44 (22.6)	14 (7.2)	27 (13.8)	195 (100.0)

주: () 안은 비율임.

는 것이 흥미롭다. 아마도 군인 출신 의원들은 좌우 이념성향에서 중간이 아닌 수파의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 듯 하고, 사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가진 의원들의 경우는 관료출신 의원과는 달리 정책의 효율성보다 내용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표 4-1〉 참조).

2) 경력에 따라 의원들의 다원성과 관료성을 가려보니까 정치인, 관료, 학자, 법조인, 사기업, 군인 등의 경력을 가진 의원들 할 것 없이 거의 관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학자출신이 실용적인 것이 이해가 잘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것이 어색하다. 여러 경력 배경중에는 역시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다원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표 4-2〉 참조).

〈표 4-3〉 경력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 (단위: 명, %)

	정치인	관 료	언론인	학 자	법조인	사기업	군 인	기 타	합 계
다원주의	13 (31.7)	5 (25.0)	6 (50.0)	4 (28.6)	8 (34.8)	16 (36.4)	2 (14.3)	10 (37.0)	64 (32.8)
관료주의	28 (68.3)	15 (75.0)	6 (50.0)	10 (71.4)	15 (65.2)	28 (63.6)	12 (85.7)	17 (73.0)	131 (67.2)
합 계	41 (21.0)	20 (10.3)	12 (6.1)	14 (7.2)	23 (11.8)	44 (22.6)	14 (7.2)	27 (13.8)	195 (100.0)

주: () 안은 비율임.

3) 경력변수를 자유주의와 회의주의 변수와 교차해 보면 정치인, 관료, 학자, 법조인, 사기업 경력 의원들이 거의 자유주의자적이고 군인 출신만이 반반씩이다. “자유주의”를 개념화한 질문을 상기하면 갈등을 수긍하고 정책영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을 뜻하는 것이므로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면 비록 전력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성향을 띠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른 문항과 달리 이 경우는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이 이채롭다(〈표 4-3〉 참조).

〈표 4-3〉 경력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법조직	사기업	군인	기타	합계
자유주의	32 (78.0)	14 (70.0)	7 (58.3)	10 (71.4)	17 (73.9)	30 (68.2)	7 (50.0)	17 (63.0)	134 (68.7)
회의주의	9 (22.0)	6 (30.0)	5 (41.7)	4 (28.6)	6 (26.1)	14 (31.8)	7 (50.0)	10 (37.0)	61 (31.3)
합계	41 (21.0)	20 (10.3)	12 (6.1)	14 (7.2)	23 (11.8)	44 (22.6)	14 (7.2)	27 (13.8)	195 (100.0)

주 : () 안은 비율임.

4) 경력에 따라 엘리트 의식이나 민중주의 의식이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았더니, 각치인과 법조인의 민중주의적 성향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반씩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인과 법조인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분히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표 4-4〉 참조).

〈표 4-4〉 경력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법조인	사기업	군인	기타	합계
엘리트주의	16 (39.0)	9 (45.0)	7 (58.3)	8 (57.1)	9 (39.1)	19 (43.2)	7 (50.0)	6 (22.2)	81 (41.5)
민중주의	25 (61.0)	11 (55.0)	5 (41.7)	6 (42.9)	14 (60.9)	5 (56.8)	7 (50.0)	21 (77.8)	114 (58.5)
합계	41 (21.0)	20 (10.3)	12 (6.1)	14 (7.2)	23 (11.8)	44 (22.6)	14 (7.2)	27 (13.8)	195 (100.0)

주 : () 안은 비율임.

5.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의 특징

1) 당선 횟수에 따라 의원들의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분석해 보았더니,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 즉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실용주의적이고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이상주의적이지는 않았다. 결국 당선 횟수는 실용

〈표 5-1〉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초선	재선	3선/이상	합계
실용주의	60 (49.2)	21 (50.0)	15 (46.9)	96 (49.0)
이상주의	62 (50.8)	21 (50.0)	17 (53.1)	100 (51.0)
합계	122 (62.2)	42 (21.4)	32 (16.3)	196(100.0)

주 : () 안은 비율임.

과 이상이라는 이념적 성향과 별로 관련이 없는 듯 하다(〈표 5-1〉 참조).

2) 같은 방법으로 당선 횟수와 다원성/관료성간의 관계를 보았더니 초선 의원들은 매우 관료주의적이고, 재선이나 삼선 그리고 그 이상의 다선 의원도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당선 횟수와 관계없이 의원들은 관료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 참조).

〈표 5-2〉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초 선	재 선	3선/이상	합 계
다 원 주 의	36 (29.5)	16 (38.1)	12 (37.5)	64 (32.7)
관 료 주 의	86 (70.5)	26 (61.9)	20 (62.5)	132 (67.3)
합 계	122 (62.2)	42 (21.4)	32 (16.3)	196(100.0)

주 : () 안은 비율임.

3) 당선 횟수와 자유성/회의성간의 관계는 초선일수록 자유주의이고 재선과 삼선이 되면 덜 자유주의이다. 따라서 그 만큼 회의주의적임을 알 수 있다. 조직생활에 얽매이고 동시에 정치세계에 좀 더 눈이 뜬 결과라고 생각한다(〈표 5-3〉 참조).

〈표 5-3〉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초 선	재 선	3선/이상	합 계
자 유 주 의	87 (71.3)	29 (69.0)	19 (59.4)	135 (68.9)
회 의 주 의	35 (28.7)	13 (31.0)	13 (40.6)	61 (31.1)
합 계	122 (62.2)	42 (21.4)	32 (16.3)	196(100.0)

주 : () 안은 비율임.

4) 당선 횟수와 엘리트주의/민중주의적 이념성향간의 관계를 보면 당선 횟수와 관계없이 의원들은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을 거의 반 반씩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민중주의적 성향이 약간 더 하다고 볼 수 있다(〈표 5-4〉 참조).

〈표 5-4〉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 (단위 : 명, %)

	초 선	재 선	3선/이상	합 계
엘 리 트 주 의	51 (41.8)	18 (42.9)	13 (40.6)	82 (41.8)
민 중 주 의	71 (58.2)	24 (57.1)	19 (59.4)	114 (58.2)
합 계	122 (62.2)	42 (21.4)	32 (16.3)	196(100.0)

주 : () 안은 비율임.

6. 전공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의 특징

1) 대학에서 전공한 학문적 배경따라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에 차이가 날 것 이라는 전제에서 의원들의 의식성향을 가늠해보니까, 역시 자연과학을 전공했 던 의원들이 매우 실용주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군사학(사관학 교출신)을 전공했던 의원들은 이상주의자들이다(〈표 6-1〉 참조).

〈표 6-1〉 전공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 (단위:명, %)

	무 전공	인문과학	자연과학	군사학	기타	합계
실용주의	9 (40.9)	67 (48.6)	7 (70.0)	4 (33.3)	4 (50.0)	91 (47.9)
이상주의	13 (59.1)	71 (51.4)	3 (30.0)	8 (66.7)	4 (50.0)	99 (52.1)
합계	22 (11.6)	138 (72.6)	10 (5.3)	12 (6.3)	8 (4.2)	190 (100.0)

주: () 안은 비율임.

2) 대학에서 전공한 학문 배경과 다원주의/관료주의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더니 대학출신이 아닌 의원이나 대학에서 인문, 자연, 또는 군사학을 전공하였거나 관계없이 대부분 관료주의적 성향을 보여 흥미롭다. 그런 가운데에도 자연과학 전공자들과 군사학 전공자들이 매우 관료주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가마도 합리성에 급급하다보면 때로 경직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인지도 모른다(〈표 6-2〉 참조).

〈표 6-2〉 전공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 (단위:명, %)

	무 전공	인문과학	자연과학	군사학	기타	합계
다원주의	8 (36.4)	51 (37.0)	3 (30.0)	1 (8.3)	1 (12.5)	64 (33.7)
관료주의	14 (63.6)	87 (63.0)	7 (70.0)	11 (19.7)	7 (87.5)	126 (66.3)
합계	22 (11.6)	138 (72.6)	10 (5.3)	12 (6.3)	8 (4.2)	190 (100.0)

주 () 안은 비율임.

3) 전공따라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자 또는 회의주의적 성향을 띠는 자를 보았더니 대학에서 군사학을 전공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고졸까지 자유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적이면서 관료주의적인 자연과학 전공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인정하고 시민의 정책영

〈표 6-3〉 전공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 (단위: 명, %)

	무 전공	인문과학	자연과학	군사학	기타	합계
자유주의	17 (77.3)	94 (68.1)	8 (80.0)	5 (41.7)	7 (87.5)	131 (68.9)
회의주의	5 (22.7)	44 (31.9)	2 (20.0)	7 (58.3)	1 (12.5)	59 (31.1)
합계	22 (11.6)	138 (72.6)	10 (5.3)	12 (6.3)	8 (4.2)	190 (100.0)

주: () 안은 비율임.

향락을 수긍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표 6-3〉 참조).

4 전공과 엘리트/민중 의식간의 관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의원들은 다분히 민중주의적이다. 엘리트의식이 그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 전공자가 민중주의자라는 것은 설명이 쉽지 않다(〈표 6-4〉 참조).

〈표 6-4〉 전공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 (단위: 명, %)

	무 전공	인문과학	자연과학	군사학	기타	합계
엘리트주의	6 (27.3)	60 (43.5)	3 (30.0)	7 (58.3)	5 (62.5)	81 (42.6)
민중주의	16 (72.7)	78 (56.5)	7 (70.0)	5 (41.7)	3 (37.5)	109 (57.4)
합계	22 (11.6)	138 (72.6)	10 (5.3)	12 (6.3)	8 (4.2)	190 (100.0)

주: () 안은 비율임.

V. 연구의 요약 및 한계...맺는 말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일반적 개관은 앞의 절에서 일단 요약이 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의원들의 인구·경제·사회학적 배경변수와 관련지어 분석한 세용을 간추려 보려는데, 그 특징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여야 정당별로 보면 역시 여당의원들이 실용주의적이고 야당의원들은 이상주의자들이다. 야당의원들이 이상주의적인 것은 정권당당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2) 의원들이 관료주의적인 것은 여야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당의원들이 좀 더 관료적인 것은 여당의원들중에는 민간 및 군 그리고 전문관료출신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3)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정치에 대해 회의적이기 보다 자유주의적인 것은 모두 정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갈등을 본질로 하는 정치현상을 피로록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4) 야당의원들은 여당의원에 비해 역시 민중주의적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야당의원들이 민중편에 서서 가진자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강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정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어딘가 씩씩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엘리트로서의 정치인은 어디까지나 선민으로서 自信을 가지고 몇몇하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哲宗의 民亂 이후부터 팽배한 평등사상을 스스로 내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의식차원에서 우월성과 태도차원에서 겸허를 분간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5) 출신지역별로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은 재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이북출신 의원들은 실용주의적이고 영남의 대구·경북지역 출신도 그러한데, 그들은 또한 관료주의적이기도 하여 실용주의와 관료주의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호남출신 의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정치적으로 회의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藝를 숭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7) 연령별로도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였는 바, 젊은 의원들은 이상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자유주의적이나,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으나 하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어서 연령으로 이념적 성향의 패턴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8) 경력별로도 의원들은 독특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특이한 것은 학자출신 의원들이 실용적이고 관료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경력의 소유자들도 대개 그러하다. 다만 언론인 출신의원들만 예외적으로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학자출신이 그러한 것은 아마도 정계에 진출할 정도면 단순한 이상주의는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9)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의원들이 오히려 관료적이고 다선의원들이 다원주의적이다. 아마도 원숙한 경지에 이른 것과 유관할지도 모른다.

(10) 전공별로도 의원들은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 예컨대 자연과학을 전공한 의원들은 실용주의자이며, 군사학을 전공한 의원은 자유주의자는 아니고, 고졸출신 의원은 비교적 엘리트의식을 갖기 보다는 민중주의적 의식을 내면화시키

고 있는 듯하다.

이상의 연구는 밝혀보지 않은 사실을 처음 규명한 것으로서의 의의는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부려 의원들의 이념적 가치성향과 겉으로 나타나는 정책표방 등 정치적 활동과 연관시켜 분석했으면 보다 뚜렷한 한국정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다음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김광웅·김학수, 『제13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분석』, 1991. 10.

박동서·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신도철외,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Aterbach, Joel D., Robert D. Putman and Bert A. Rockman,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Western Democrac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부 록〉…보충자료

〈부표 2-1〉 지역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이북	합계
실용주의	8 66.7	13 56.5	1 10.0	2 40.0	8 47.1	8 44.4	14 42.4	24 60.0	15 45.5	— —	3 75.0	96 49.0
이상주의	4 33.3	10 43.5	9 90.0	3 60.0	9 52.9	10 55.6	19 57.6	16 40.0	18 54.5	1 100.0	1 25.0	100 51.0
합 계	12 6.1	23 11.7	10 5.1	5 2.6	17 8.7	18 9.2	33 16.8	40 20.4	33 16.8	1 .5	4 2.0	196 100.0

〈부표 2-2〉 지역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이북	합계
다원주의	3 25.0	7 30.4	1 10.0	— —	6 35.3	6 33.3	15 45.5	12 30.0	13 39.4	— —	1 25.0	64 32.7
관료주의	9 75.0	16 69.6	9 90.0	5 100.0	11 64.7	12 66.7	18 54.5	28 70.0	20 60.6	1 100.0	3 75.0	132 67.3
합 계	12 6.1	23 11.7	10 5.1	5 2.6	17 8.7	18 9.2	33 16.8	40 20.4	33 16.8	1 .5	4 2.0	196 100.0

〈부표 2-3〉 지역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이북	합계
자유주의	7 58.3	16 69.6	6 60.0	4 80.0	11 64.7	16 88.9	28 84.8	22 55.0	23 69.7	— —	2 50.0	135 68.9
회의주의	5 41.7	7 30.4	4 40.0	1 20.0	6 35.3	2 11.1	5 15.2	18 45.0	10 30.3	1 100.0	2 50.0	61 31.1
합 계	12 6.1	23 11.7	10 5.1	5 2.6	17 8.7	18 9.2	33 16.8	40 20.4	33 16.8	1 .5	4 2.0	196 100.0

〈부표 2-4〉 지역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이북	합계
엘리트주의	2 16.7	14 60.9	4 40.0	3 60.0	6 35.3	6 33.3	11 33.3	19 47.5	16 48.5	— —	1 25.0	82 41.8
민중주의	10 83.3	9 39.1	6 60.0	2 40.0	11 64.7	12 66.7	22 66.7	21 52.5	17 51.5	1 100.0	3 75.0	114 58.2
합 계	12 6.1	23 11.7	10 5.1	5 2.6	17 8.7	18 9.2	33 16.8	40 20.4	33 16.8	1 .5	4 2.0	196 100.0

〈부표 3-1〉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보충자료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합 계
실 용 주 의	1 33.3	20 54.1	53 48.2	22 47.8	96 49.0
이 상 주 의	2 66.7	17 45.9	57 51.8	24 52.2	100 51.0
합 계	3 1.5	37 18.9	110 56.1	46 23.5	196 100.0

〈부표 3-2〉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보충자료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합 계
다 원 주 의	2 66.7	13 35.1	37 33.6	12 26.1	64 32.7
관 료 주 의	1 33.1	24 64.9	73 66.4	34 73.9	132 67.3
합 계	3 1.5	37 18.9	110 56.1	46 23.5	196 100.0

〈부표 3-3〉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보충자료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합 계
자 유 주 의	3 100.0	27 73.0	75 68.2	30 65.2	135 68.9
회 의 주 의	— —	10 27.0	35 31.8	16 34.8	61 31.1
합 계	3 1.5	37 18.9	110 56.1	46 23.5	196 100.0

〈부표 3-4〉 연령별로 본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보충자료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합 계
엘 리 트 주 의	1 33.3	13 35.1	52 47.3	16 34.8	82 41.8
민 중 주 의	2 66.7	24 64.9	58 52.7	30 65.2	114 58.2
합 계	3 1.5	37 18.9	110 56.1	46 23.5	196 100.0

〈부표 4-1〉 경력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법조인	공기업	사기업	군인	기타	합 계
실 용 주 의	22 53.7	11 55.0	5 41.7	9 64.3	10 43.5	1 100.0	16 36.4	5 35.7	16 61.5	95 48.7
이 상 주 의	19 46.3	9 45.0	7 58.3	5 35.7	13 56.5	—	28 63.6	9 64.3	10 38.5	100 51.3
합 계	41 21.0	20 10.3	12 6.2	14 7.2	23 11.8	1 .5	44 22.6	14 7.2	26 13.3	195 100.0

〈부표 4-2〉 경력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법조인	공기업	사기업	군인	기타	합 계
다원주의	13 31.7	5 25.0	6 50.0	4 28.6	8 34.8	— —	16 36.4	2 14.3	10 38.5	64 32.8
관료주의	28 68.3	15 75.0	6 50.0	10 71.4	15 65.2	1 100.0	28 63.6	12 85.7	16 61.5	131 67.2
합 계	41 21.0	20 10.3	12 6.2	14 7.2	23 11.8	1 .5	44 22.6	14 7.2	26 13.3	195 100.0

〈부표 4-3〉 경력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법조인	공기업	사기업	군인	기타	합 계
자유주의	32 78.0	14 70.0	7 58.3	10 71.4	17 73.9	1 100.0	30 68.2	7 50.0	16 61.5	134 68.7
회의주의	9 22.0	6 30.0	5 41.7	4 28.6	6 26.1	— —	14 31.8	7 50.0	10 38.5	61 31.3
합 계	41 21.0	20 10.3	12 6.2	14 7.2	23 11.8	1 .5	44 22.6	14 7.2	26 13.3	195 100.0

〈부표 4-4〉 경력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보충자료

	정치인	관료	언론인	학자	법조인	공기업	사기업	군인	기타	합 계
엘리트주의	16 39.0	9 45.0	7 58.3	8 57.1	9 39.1	1 100.0	19 43.2	7 50.0	5 19.2	81 41.5
민중주의	25 61.0	11 55.0	5 41.7	6 42.9	14 60.9	— —	25 56.8	7 50.0	21 80.8	114 58.5
합 계	41 21.0	20 10.3	12 6.2	14 7.2	23 11.8	1 .5	44 22.6	14 7.2	26 13.3	195 100.0

〈부표 5-1〉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적 성향...보충자료

	1	2	3	4	5	6	합 계
실용주의	60 49.2	21 50.0	11 61.1	1 12.5	3 75.0	— —	96 49.0
이상주의	62 50.8	21 50.0	7 38.9	7 87.5	1 25.0	2 100.0	100 51.0
합 계	122 62.2	42 21.4	18 9.2	8 4.1	4 2.0	2 1.0	196 100.0

〈부표 5-2〉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다원주의와 관료주의적 성향...보충자료

	1	2	3	4	5	6	합 계
다원주의	36 29.5	16 38.1	10 55.6	2 25.0	— —	— —	64 32.7
관료주의	86 70.5	26 61.9	8 44.4	6 75.0	4 100.0	2 100.0	132 67.3
합 계	122 62.2	42 21.4	18 9.2	8 4.1	4 2.0	2 1.0	196 100.0

〈부표 5-3〉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자유주의와 회의주의적 성향...보충자료

	1	2	3	4	5	6	합 계
자·유·주·의	87 71.3	29 69.0	12 66.7	3 37.5	3 75.0	1 50.0	135 68.9
회·의·주·의	35 28.7	13 31.0	6 33.3	5 62.5	1 25.0	1 50.0	61 31.1
합 계	122 62.2	42 21.4	18 9.2	8 4.1	4 2.0	2 1.0	196 100.0

〈부표 5-4〉 당선 횟수별 의원들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적 성향...보충자료

	1	2	3	4	5	6	합 계
엘리트주의	51 41.8	18 42.9	6 33.3	4 50.0	1 25.0	2 100.0	82 41.8
민중주의	71 58.2	24 57.1	12 66.7	4 50.0	3 75.0	— —	114 58.2
합 계	122 62.2	42 21.4	18 9.2	8 4.1	4 2.0	2 1.0	196 100.0